

홈 > 뉴스 > 문화 > 학술

“지역문화 인프라·전문인력 확보 필요”

■ 김용철 성신여대 교수 오늘 ‘도립미술관…’ 포럼서 발표

2008년 11월 19일 (수)

박지영



▲ 지난달 24일 춘천미술관에서 열린 서양화가 박복균 씨 두번째 개인전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자연조건 등 연구검토 지역 정체성 확립” 주장

각계 전문가 참여 미술관 설립·운영방법 토의

강원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회장 최옥영)가 주최하는 강원문화포럼이 19일 오후 3시 강원국악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포럼에 앞서 김용철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가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에 앞선 제언'을 주제로 한 자료에서 "지자체가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건립할 경우 지켜야 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며 "먼저 대전제는 진행순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첫번째 조건이 강원도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자연조건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논의를 통해서만 온전히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사의 연구성과나 도내 대학의 지역 연구성과는 지역적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도 중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미술관의 설립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많은 지자체의 경우 촉박한 기한을 정해 일정에 쫓겨 사업을 추진하고, 더욱이 건물을 먼저 지어놓은 다음 내용을 채우려는 앞뒤가 뒤바뀐 일정을 진행함으로써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한 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 양구 박수근미술관 전경.



▲ 양구군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 ‘팔레터’를 도자벽화로 제작, 방산면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 위병소에 설치해 시선을 끌고 있다.

강원도 자원을 이용한 미술관 건립의 의견도 제기됐다.

최석태 미술평론가는 ‘강원도립미술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지역에 기반한 미술관의 경우 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미술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유용한 방법”이라며 “양구 출신 박수근 화백은 이미 양구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미술관을 세워 좋은 출발을 했지만 전국 최소 규모 군이라는 한계 등으로 운영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전체의 입장에서 이를 포괄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나무와 숲은 강원도 최대의 자산으로 관련 주제로 실행된 국제적인 기획전을 모델로 출발하는 것도 좋으며, 젊은 예술가 상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의 사회로 강원도립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방법 등이 발표되며, 김병철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인수 도문화예술과장, 이재수 춘천문화재단이사, 김동욱 민미협도지회 사무처장,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지영 jyp@kado.net